

# 《고사촬요》에 반영된 의학관계자료의 사료적가치

김 경 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선조들은 의학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세계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158페이지)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약초를 채취하여 건강장수와 병치료에 널리 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 의학을 발전시켰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귀한 약초들이 많이 자랐으며 그것은 주변 나라들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중국의 력사책인 《산해경》에는 우리 나라에 불사약이 많기때문에 제나라의 위왕, 선왕, 연나라의 소왕, 초나라의 양왕, 진시황, 한무제, 타이의 삼왕 등이 그것을 캐러 사신을 보냈다는 자료가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고려의학의 발전시킬수 있는 객관적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어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혜로운 우리 민족은 풍부한 치료경험을 쌓으면서 고려의학발전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으며 그 우수성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 인민의 치료경험과 의학성과들을 집대성하여 15세기에 편찬된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 1610년에 편찬된 《동의보감》은 고려의학의 3대전서로서 세계의학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오늘까지도 그 가치를 잃지 않고 고려의학발전의 기초로 리용되고있다.

《고사촬요》에서는 이러한 의학서적들에 기초하여 당시 우리 인민들속에서 자주 리용되던 고려약과 치료방법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시기 의학발전수준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고사촬요》에 반영된 의학관계자료의 사료적가치는 무엇보다먼저 16세기 우리 인민들이 만들어쓰던 수백여종의 고려약들이 실려있어 이 시기 고려약학의 발전면모를 파악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이 책에는 모두 262종에 달하는 고려약들의 명칭과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 실려있다.

이 약들은 대체로 리질, 학질, 열병, 설사증, 부종, 머리아픔 등을 비롯하여 당시 성행 하던 수십여종의 전염병들과 돌림성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쓰이였으며 탕약과 알약에 따라 사용방법이 달랐다.

알약인 경우 대체로 물이나 술, 탕에 타서 먹었으며 탕약인 경우 물과 대추, 생강, 박하 잎 등을 넣고 함께 달여 먹었다.

실례로 알약인 청심환으로는 모든 풍병과 정신이 흐리멍텅한것, 심한 진통으로 몸부림치며 쓰러지는것 등을 치료하였는데 매번 1알씩 더운물에 타서 식후에 먹었다. 어린이의 경간을 치료할 때에는 죽엽탕(참대잎을 끓여 만든 탕)에 타서 먹었다.

향유환은 더위를 먹어서 생기는 병을 치료하는데 쓰이였는데 매번 1~2알씩 잘게 씹어 탕이나 방금 길어온 물에 타서 먹었다.

지보단은 중풍으로 하여 언어가 마비되는것, 녀성들속에서 해산후 피를 많이 흘려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지러운것 등을 치료하는데 쓰이였는데 인삼탕에 타서 먹었다.

한편 탕약인 통기구풍탕은 허풍과 소름이 끼쳐 몸이 떨리는것, 손이 가드라들고 입과 눈이 뻐뻐해지는것, 반신불수 등을 치료하는데 쓰이였다. 사용방법은 생강 3쪽, 대추 2알을 넣고 함께 달이여 먹었다.

탕약인 경우에도 끓이는 시간과 정도가 서로 달랐고 먹는 시간도 차이가 있었다.

실례로 인삼순기탕은 풍병과 반신불수를 치료하는데 쓰이였는데 물 한잔과 생강 3쪽, 대추 1알, 박하 5~7잎을 넣고 80%정도 남을 때까지 달이여 먹었다.

소적명탕은 중풍을 치료하는데 쓰이였는데 물 1잔반, 생강 5쪽, 대추 1알을 넣고 1잔반 정도 남게 달이여 식전에 먹었다.

반하금출탕은 손과 팔이 아픈것을 치료하는데 쓰이였는데 물 2잔, 생강 5쪽을 넣고 1잔이 될 때까지 달이여 식후에 먹었다.

여기서 인삼순기탕은 시간에 관계없이 먹는 약이였고 소적명탕은 식전에, 반하금출탕은 식후에 먹는 약이였다.

《고사촬요》에 반영된 의학관계자료의 사료적가치는 다음으로 16세기 우리 인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리용되던 치료법들이 반영되어있어 고려의학의 치료기술과 방법을 리해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이 책에는 수십여종의 병치료방법이 상세히 실려있는데 대표적인 몇가지 항목들을 본다면 균독을 치료하는 방법, 개한테 물렸을 때의 치료법, 말이 물거나 밟아서 생긴 상처치료법, 범이나 뱀한테 물렸을 때의 치료법, 벌레가 귀에 들어갔을 때의 치료법,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의 치료법, 고기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의 치료법, 나무나 참대가 살에 들어갔을 때의 치료법, 물고기뼈가 목구멍에 걸렸을 때의 치료법, 까끄라기가시가 목구멍에 걸렸을 때의 치료법, 칼에 상했을 때의 치료법, 화상치료법, 추위를 타지 않게 하는 방법, 천연두치료법 등을 들수 있다.

이 치료방법들을 보면 대부분이 고려약물학적치료방법과 침, 뜸에 의한 치료방법이였다.

실례로 균독에 중독되었을 때에는 즉시 참기름을 마시면 낫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박속을 태워 재를 만들어 물에 타서 마시면 아주 신묘하다고 하였다.

개한테 물렸을 때는 마른 생강을 물린 자리에 바르면 곧 낫는다고 하였다.

범의 다리뼈 혹은 머리뼈를 가루내어 매번 2돈(1돈은 3.75g)씩 더운 술이나 끓인 물에 타서 먹어도 낫는다고 하였다.

말이 물거나 밟아서 상처가 생겼을 때는 쑥으로 상처와 부어오른 곳에 뜸을 뜨거나 말뚝을 태워 가루내어 붙이면 된다고 하였다.

추위를 타지 않는 방법으로 천문동과 흰술풍령을 가루내어 먹었는데 술에 타서 2돈정도 마시는것을 날마다 거듭하면 대한때에 단벌옷을 입고있어도 땀이 나왔다고 한다.

이상의 자료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리용되는 치료방법들이며 특별한 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방법만 알면 치료할수 있는것이였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자료들을 편람형식으로 묶은 책인 《고사촬요》에 취사선택되어 실린것으로 보아 당시 민간에서 이러한 정도의 의학상식들을 누구나 알고있었다고 볼수 있다.

《고사촬요》에 반영된 의학관계자료의 사료적가치는 다음으로 16세기 우리 인민들의 약제조와 치료에 널리 리용된 약초 및 약재, 그에 따르는 가격이 실려있어 당시 고려의학발

전의 사회적조건과 민간에서 고려약의 리용정형을 리해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는 귀중한 약재가 매우 많다.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날부터 각종 약재들의 특성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적극 채취리용하였다.

이 책에는 140여종의 약초 및 약재들의 명칭과 그 가격이 면포와 쌀로 환산되어 실려있다.

실례로 침향과 주사의 가격은 면포로는 1필, 쌀로는 1말이었다. 그리고 사향은 면포로는 2필, 익지, 천궁, 초과, 가자, 광향, 육두구, 오수유, 천산갑은 쌀로 7되였다.

침향이란 팔꽃나무과에 속하는 침향 및 백목향의 나무진이 스며든 나무질부분을 말하며 주사란 류화수은을 주성분으로 하는 광석을 말한다.

익지는 생강과에 속하는 익지의 익은 열매를 약재로 이르는 말이고 천궁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궁궁이의 뿌리줄기이다.

초과는 생강과에 속하는 초과의 익은 열매이고 가자는 사군자나무과에 속하는 가자나무의 익은 열매이다.

광향은 꿀풀과에 속하는 방아풀이고 육두구는 육두구과에 속하는 육두구나무의 여문씨를 말한다.

오수유는 산초과에 속하는 오수유나무의 익지 않은 열매를 약재로 이르는 말이고 천산갑은 천산갑과에 속하는 천산갑의 비늘이다.

이처럼 16세기 우리 나라에서는 수많은 고려약초 및 약재들이 채취되어 리용되었지만 일반백성들이 사서 쓰기에는 비싼것이였다.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수탈과 련이어 겹치는 흉년으로 하여 풀뿌리를 비롯한 대용식품으로 근근히 생을 연명해가던 당시의 조건에서 쌀 1말이나 7되, 면포 1필 등은 낮은 가격이 아니였다.

이 시기 전염병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들이 수많이 제조되었지만 인민들은 마음대로 사서 쓸수 없었던 결과 사회적으로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으며 기아와 병마로 인하여 사회생활은 더욱 악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 나라 고려약재의 풍부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발전된 고려의학치료기술을 보여주고있다.

《고사촬요》의 의학관계자료들은 이처럼 커다란 사료적가치를 가지는 반면에 일부 부족점들도 가지고있다.

실례로 구하기 힘든 귀한 약재나 우리 나라에서는 나오지 않는 다른 나라의 약초들을 치료에 쓰거나 저속하고 미신적인것을 치료경험으로 소개하고있는것 등을 들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선조들이 물려준 고려의학발전의 귀중한 경험과 유산을 더 많이 찾아내고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나라의 의학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